

대학 재정의 확충 방안을 말한다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기본방향과 내용

김 두 식

교육부 대학재정과장



1. 서 론

세계 여러 나라들은 앞으로 전개될 21세기를 주도하기 위하여 국가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데 총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미국은 교육의 질적 저하가 국가 위기를 초래하였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한 일련의 교육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창조력을 갖춘 일본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개성과 창의력을 강조하는 교육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

도 학력 향상, 기술교육 강화, 교육기회의 균형적 확대 등을 위하여 학제 개편, 입시제도 등 교육개혁 작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들이 교육개혁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교육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발전의 원동력임과 동시에 국가발전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즉, 교육은 타부문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민 각자가 자아실현과 인격완성을 이룩하여 인간다운 삶의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복지 증진은 물론 국가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여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개혁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 우리는 크고 작은 교육개혁을 여러 차례 추진하였다.

다행히, 지난 1994년 2월에는 종전의 교육개혁과는 달리 장기적이고 보다 근본적이며 종합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였다. 이번에 설치된 교육개혁위원회는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강한 의지와 추진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교육개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98년까지 GNP 대비 5%의 교육재정을 확보하도록 제도화 하는 등 교육의 선진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향상과 2000년대 복지국가 건설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교육개혁안을 수립·제시하였다. 동 교육개혁안은 1차(1995.5.31), 2차(1996. 2. 9), 3차(1996.8.20)에 걸쳐 발표되면서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 재정 정책도 이러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즉, 대학교육의 경쟁력 향상을 통하여 우리나라 대학이 세계 속의 대학으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길러 주는 데 정부 재정 지원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대학 재정 지원의 원칙과 기본 방향을 간략히 살피고, 대학 지원 예산 개황, 일반지원 사업, 특수목적지원 사업의 내용을 개관한 후 향후 재정 지원 계획의 큰 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2. 대학 재정 지원의 원칙과 기본 방향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의 원칙과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및 교육개혁 추진 실적을 평가해서 재정 지원과 연계 시킴으로써 대학의 자구 노력을 유도한다.

둘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지원을 통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학 간 선의의 경쟁 체제를 마련한다.

셋째, 대학의 연구력을 향상시키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다양화·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넷째,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강화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특히, 지난해 5·31 교육개혁안이 발표됨에 따라 교육 현장의 자발적인 교육개혁 노력을 지원하고, 교육개혁 운동을 확산·정착시키기 위해서 일선현장의 교육개혁 실적과 정부의 교육재정 지원 정책을 최대한 연동시킬 수 있는 방안이 계속 강구되고 있다.

3. 대학 재정 지원 현황

1) 예산 개황

1990년대 초까지는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도 작았고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 개념도 별로 없었다. 그리고 대학에 대한 정책은 학생정원을 차등 배정하는 등의 직접적 방법을 통해 대학을 지도하였다. 그러다가 1992년에 학과 평가인정제가 도입되고, 1994년에 대학종합평가 및 교수업적평가 등 각종 평가 제도가 도입되면서 공과대학 중점지원 사업, 사립대학 시설·설비 확충 사업 및 국·공·사립대학 자구노력 지원 사업 등 평가를 통한 재정의 차등 지원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직접적인 행정 지도 방법 보다는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크게 증가

시키고, 한편으로는 대학의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이를 재정 지원과 연계함으로써 대학의 특성화·다양화를 유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며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증가율을 보면, '93년에는 20.0%, '94년 48.3%, '95년 40.6%, 그리고 '96년에는 47.5%인데 '94년 이후는 매년 40% 이상의 큰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표 1〉 참조).

이러한 대학 지원 예산을 사업 성격별로 보면, 일반지원 사업과 특수목적지원 사업

으로 나눌 수 있는 바, 이를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일반지원 사업

일반지원 사업은 대학 자구노력 지원, 사립대학 시설·설비 확충 지원 그리고 교육차관사업 지원 등이 있다(〈표 2〉, 〈표 3〉 참조). 일반지원 사업비는 대학의 학생수와 자구노력 정도, 그리고 사업 목적에 따라 공평하고 균등하게 배분되는 예산이다. 일반지원 사업비는 '92년에 2,748억 원이던 것이 '96년에 8,886억 원으로 5년 사이에 3.2배로 증가되었으며, 그 중 일부 사업을

〈표 1〉 대학 지원 예산 현황 개요(1992~1997)

(단위: 억 원)

구 분		연도별 지원액 및 증가율						평 균 ('93~'97)
		'92	'93	'94	'95	'96	'97(안)	
일반지원 사 업 (26종)	금 액	2,748	3,297 (549)	4,489 (1,192)	6,274 (1,785)	8,886 (2,612)	10,506 (1,620)	6,690 (1,522)
	전년 대비 증가율(%)	-	20.0	36.2	39.8	41.6	18.2	31.2
	총계 대 구성비(%)	100.0	100.0	91.8	91.3	87.7	89.0	90.4
특수목적 지원사업 (5종)	금 액	-	-	400	600 (200)	1,250 (650)	1,300 (50)	888 (300)
	전년 대비 증가율(%)	-	-	-	50.0	108.0	4.0	54.0
	총계 대 구성비(%)	-	-	8.2	8.7	12.3	11.0	
총 계 (31종)	금 액	2,748	3,297 (549)	4,889 (1,592)	6,874 (1,985)	10,136 (3,262)	11,806 (1,670)	7,400 (1,812)
	전년 대비 증가율(%)	-	20.0	48.3	40.6	47.5	16.5	34.6
	총계 대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금액란 중 ()는 전년 대비 증가액임.

* 전문대학 지원예산 및 국립대학의 인건비, 운영비는 제외하였음.

* 출처: 교육부 내부자료를 재구성한 것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학 자구노력 지원사업은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연구력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94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국·공·사립대학(전문대, 개방대, 교육대 포함)을 대상으로 기본지원, 사업목적지원, 정책유도지원으로 나뉘어 국·공립대학은 10개 세부평가지표, 사립대학은 13개 세부평가지표에 의하여 평가된 결과에 따라 대학별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사립대학 시설·설비 확충 지원사업은 사립대학의 부족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확충

하고, 도서관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여건을 개선하며, 사립대학의 재정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9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대학 자구노력 지원사업과 사립대학 시설·설비 확충 지원사업 중 기본지원은 모든 대학에 최소한의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사업목적지원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하고, 정책유도지원은 정부 정책의 이행을 유도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별 평가지표와 지표별 반영비율은 <표 2>와 같다.

<표 2> '96 재정 지원 기준 지표

○자구노력 지원

기본지원 (10%)	사업목적지원 (50%)	정책유도지원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당경비 (5%) 학생수 (5%) 	(국·공립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성회비 중 시설투자실적 (20%) 교수 1인당 연구과제수 (15%) 교수 1인당 연구비 (15%) (사립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수 1인당 학생수 (15%) 학생 1인당 교육비 (10%) 법인전입금 실적 (10%) 교사(校舍) 확보율 (5%) 기숙사 확보율 (5%) 장학금 지급실적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직교수 비율 (10%) 타교출신 교수 비율 (10%) 교수업적평가제 도입 (10%) 재정 공개 (5%) 등록금 납부방법 개선 (5%)

○사립대 시설·설비 확충 및 도서관 지원

기본지원 (20%)	사업목적지원 (50%)	정책유도지원 (40%)
(시설·설비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당 경비 (10%) 이공계 학생수 (5%) 이공계 교수수 (5%)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당 경비 (10%) 학생수 (5%) 교수수 (5%) 	(시설·설비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율 (15%) 학생 1인당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15%)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 투자액 (10%)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도서관 면적 (5%) 단행본 도서확보율 (5%) 1인당 도서구입비 (10%) 1인당 전산투자액 (10%) DB 도서 구축률 (10%) 	※자구노력 지원과 동일

※ 감산지표

- 입시부정 등 비리적발, 예·결산서 제출 지연, 등록금 (국립은 기성회비) 과다 인상 등에 대하여는 일정비율 감하여 지원.

〈표 3〉 일반지원사업 예산 현황 (1992~1997)

(단위 : 억 원)

사 업 명	연도별 지원액					
	'92	'93	'94	'95	'96	'97(안)
○ 교육차관사업 지원	850	1,006	1,037	1,302	1,651	1,696
○ 학술연구 조성사업	203	270	400	600	900	1,200
○ 박사후 연구과정	—	—	—	—	80	80
○ 외국석학과외 공동연구 지원	—	—	—	—	25	25
○ 전국단위 연구소 지원	19	19	19	19	19	29
○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	—	17	193	195	200
○ 박사과정생 해외지역연구 지원	—	—	—	2	2	4
○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원	5	5	5	5	5	5
○ 신진연구인력 장학금 지원	—	9	9	9	9	15
○ 대학생 학자금 이차 보전	118	117	91	78	78	75
○ 사립대 시설확충 융자 이차 보전	2	1	1	2	1	1
○ 개방대학시설 지원	94	100	122	177	251	313
○ 교육대학시설 지원	67	47	72	91	202	256
○ 대학시설 지원	782	827	974	1,422	2,055	2,378
○ 국립대학 실습 기자재 확충	97	164	167	451	750	1,079
○ 사립대학 시설·설비 확충	240	400	400	700	1,050	1,250
○ 교대·교원대 기성회 보조	6	4	4	4	4	4
○ 국·공·사립대 자구노력 지원	—	—	500	450	600	800
○ 국립대학교 교원연구비 보조	170	203	430	457	586	593
○ 대학생 학·예술 활동 지원	5	5	3	2	2	4
○ 사도장학금 지원	90	120	120	124	138	141
○ 공주대 산업과학대 이전	—	—	—	32	20	36
○ 금오공과대 이전	—	—	—	22	30	50
○ 대전산업대 이전	—	—	118	133	154	183
○ 밀양산업대 이전	—	—	—	—	69	12
○ 대학전산망 구축	—	—	—	—	10	77
계(26종)	2,748	3,297	4,489	6,274	8,886	10,506

* 출처 : 교육부 내부자료를 재구성한 것임.

3) 특수목적지원 사업

특수목적지원 사업은 1994년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특수목적지원 사업으로는 공과대학 중점지원 사업, 우수대학원 중점지원 사업, 국제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 재정지원 사업, 이공계대학 연구소 기

재제 첨단화지원 사업 등 5가지가 있다 (〈표 4〉 참조).

공과대학 중점지원 사업은 대학별 특성화 분야 중점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사회와 산업체의 대응 투자 등을 유도하고 지방 공과대학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1994년에서 1998년까지 5

〈표 4〉 특수목적지원 사업 예산 현황(1994~1997)

(단위: 억 원)

사 업 명	연 도 별 지 원 액			
	'94	'95	'96	'97(안)
○공과대학 증점지원	400	400	400	400
○우수대학원 증점지원	-	200	200	200
○국제 전문인력 양성 지원	-	-	200	200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 지원	-	-	300	300
○이공계대학 연구소 기자재 첨단화 지원	-	-	150	200
계(5종)	400	600	1,250	1,300

* 출처: 교육부 내부자료를 재구성한 것임.

년간이고 총 사업비는 2,000억 원(연간 400억 원)이며, 지원대상 대학은 지방 공과대학 8개교(국립 7교, 사립 1교)이다. 이 사업은 사업추진 2차년도에 대학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실적이 미흡한 3개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별 지원예산을 삭감하여 사업추진 실적이 우수한 대학에 증액 지원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대학원 증점지원 사업은 국가 산업 발전에 토대가 되는 과학 기술 분야의 대학원 중심대학을 선별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고급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1995년에서 1999년까지 5년간이고 총 사업비는 1,000억 원이며, 지원대상 대학은 서울대 등 5개 대학의 이·공계열 대학원이다.

국제 전문인력 양성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은 통상·국제 협력 및 지역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대학 중에서 9개 우수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1996년에서 2000년까지 5년간이고 총 사업비는 매년 200억 원씩 1,000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대학별로 국고 지원액 이상으로 대학 자체 대응투자를 할 계획이고, 앞으로 매년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지원 규모를 조정함은 물론 평가결

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각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교육 체제의 원활한 추진을 장려함으로써 신교육 체제의 확산·정착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금년에 신설된 사업이며, 당분간 매년 평가를 통하여 우수대학을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96년도에는 113개교가 이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지원대학 및 지원액 결정은 11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서류) 평가와 현지방문 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그 중 23개교(대학 20개교, 방송대 1개교, 개방대 1개교, 교육대 1개교)를 분야별 우수대학으로 선정·지원하였다.

4. 향후 재정 지원 계획

21세기는 정보화 사회, 세계화 시대로 특징지어진다. 정보화 사회는 지식 및 정보의 생성과 소멸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사회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된다. 세계화란 전 세계가 국경 없는 하나의 사회로, 즉 지구촌 사회로 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을 둘러싼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우선 대학교육 기회의 공급구조가 크게 변화

된다. 대학설립 준칙주의에 따라 소규모로 특화된 대학들의 신규 진입이 허용되어 대학간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외국 고등교육기관의 국내 진출이 예정되어 있어 국내 대학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외국 대학과의 경쟁도 감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산업체가 운영하는 신대학(기술대학) 제도의 도입으로 고등교육시장의 공급 체제는 더욱 경쟁적인 체제로 바뀔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 아래 대학 재정 지원은 대학별 특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대학의 획기적인 변화·발전과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학교육의 질 향상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필요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학문·과학기술 분야의 고급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소수 우수대학에 집중 지원하는 특수목적지원 사업(국책사업)도 필요하다.

앞으로는 대학 자구노력 지원사업 및 공·사립대학 시설·설비 확충 지원사업 등 모든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바,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국립대학의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율을 높이고 사립대학의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도서관 지원을 계속 확대한다.

둘째, 대학의 다양화·특성화를 촉진하고 학부중심대학, 대학원중심대학 등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부 재원은 집중 지원하게 될 것이다. 공대 중점지원 사업, 우수대학원 중점지원 사업 등이 그 대

표적인 예가 된다.

셋째, 대학의 학술 연구를 세계 일류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학술 연구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우수한 신진 연구자 600명에게 박사후 연수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 석학과의 공동 연구 및 국제 학술지 발행을 적극 권장하고, 학술 연구 수준의 세계화를 위해서 이공계열 연구소 기자재의 첨단화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과 함께 ① 열린교육 사회, 평생학습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교육정보화·세계화를 위한 투자를 더욱 늘리고, ② 대학 교양교과의 원격 교육, 교원 원격 연수 등 단위 비용이 저렴한 첨단 교육 방법을 도입하여 인건비 등의 경직성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③ 민간 부문의 교육 시설, 교육 프로그램 등을 학교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킬 것이다.

5. 맺는 말

정부는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의 총량 규모를 늘리면서 배분에 있어서는 형평성과 한정된 자원 운용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 지원을 할 것이다. 경쟁을 통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평가와 재정 지원의 연계를 강화하여 자구노력을 유도하며, 평가에 따른 재정 지원 체제를 더욱 발전시켜 갈 것이다.

그리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대학, 발전 가능성을 보이는 대학들을 발굴하여 재정 지원을 하는 다양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제도적 보완도 병행해 갈 것이다. ■